

# “화합으로 하나되는 체육회 만들 것”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 63% 득표율... 변화·혁신으로 표심 얻어 배구선수 출신... 실천하는 체육행정가 삶

전갑수(62·사진) 후보가 삼수 끝에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전갑수 당선인은 15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치러진 '제3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자 365명 중 231표(득표율 63.29%)를 얻어 133표(35.62%)를 획득한 박찬모 후보를 물리쳤다.

배구 선수 출신인 전 당선인은 기업인이자 체육행정가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사재를 털어 12년 동안 실업배구팀을 창단, 운영했고 페퍼스 여자 프로배구단 광주연고 유지 등 배구활성화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했다. 광주체고 출신 선수 2명을 페퍼 배구단에 입단토록 힘을 보태는 등 선수 연계 육성의 모델을 제시했다.

화합형 리더로 평가받는 전 당선인이 '소통과 화합'을 내세워 표심을 과고들었다. 민선 1.2기 광주체육회는 회장 중도사퇴로 파행운영되는 등 사실상 침체를 보였다. 인사에서도 전문·생활체육간 안배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선 즉시 가장 '업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체육회 임원을 직능, 전공, 성별, 경륜별로 적정 배분하고 체육회 업무도 직능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등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 당선인은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권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을 맡았다. 고역기부 자립법인 광주 아나소사이어티 106번째 회원이다. 민선 1.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 당선인은 당선 소감문에서 "선거 공약에서 강조한 것처럼 소통과 화합으로 광주시체육회를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광주체육을 반드시 재도약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체육인이 주인되는 체육행정 구현”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 목포체육회장 지내... 치열한 3파전 승리 체육회 재정 독립·자주적 운영 공약

목포체육회장을 지낸 송진호(59·사진) 후보가 전남도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15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치러진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표 339표 가운데 116표(득표율 32.8%)를 얻어 장세일(112표, 31.6%), 윤보선(111표, 31.4%)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체육회 현안인 재정 독립과 자주적 운영을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체육회 운영행태에서 벗어나 독립, 자주적 운영을 표방했다. 구체적으로 체육회 재정자립을 위해 도예산 대비 일정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체육회를 개혁해 체육인이 주인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 공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체육회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그는 선거전에서 "공정한 체육지원, 투명한 체육행정, 인적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전남체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공약으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 종목단체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 사무실 개설, 종목단체 사



〈전남도체육회 제공〉

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목포 문태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전남도해양레저 자원위원을 맡고 있다.

송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짧은 선거 기간 동안 경쟁을 펼친 장세일 후보님과 윤보선 후보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라면 언제든지 나누겠다"면서 "두 후보님을 지지해 주신 체육인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행복하고 건강한 전남체육, 소통으로 하나 되는 전남체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유럽소생위원회 “일반인 시행 CPR 최적 아닌 경우 많았다”

### 이태원 참사 첫 논문... “압박속도 빠르고 혈액 덜 찬 ‘빈 심장’ 압박”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유럽소생위원회(ERC)가 이태원 참사 당시 일반인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CPR에 대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담긴 논문을 내놨다. 국내외를 통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유럽소생위원회(ER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소생(Resuscitation)' 최신호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대학 니노 피야츠코 교수, 제리 놀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공동 연구팀은 이번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문에서 희생자들의 주된 사인인 압박 질식(compression asphyxia)에 따른 '저산소 심장지' (hypoxic cardiac arrest)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담긴 10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과 관련해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이 중 두 가지는 목격자 중 현장에서 바로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구호전문가를 도운 게 대부분 청소년이었고, 이 청소년들이 희생자나 구호전문가를 도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었다. 다만 위원회는 세 번째 특징으로 "목격자들의 심

폐소생술 수준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면서 "압박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완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이런 분석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심장에 피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 이완이 덜 된, 즉 '빈 심장' 상태에서 심장을 압박했다는 의미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성훈 교수는 "CPR은 가슴을 압박해 심장에 있던 혈액을 내보낸 다음 완전히 이완해야 심장에 피가 다시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반쯤 이완된 상태에서 또 가슴을 압박한다면 내보내지는 혈액량이 적어 피가 없는 빈 심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돼 소생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김치와 파오차이, 무엇이 다른가

### 세계김치연구소, 영상 공개... 조리법·맛·용기 차이 답아

세계김치연구소는 "한국의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泡菜)는 무엇이 다른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영상(youtu.be/SnmzJGnGyK)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치의 특별함'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5분 분

량이며 영어와 중국어로도 자막 처리돼 현재 소셜 미디어(SNS)에서 전파되고 있다.

영상은 이 연구소 글로벌 홍보대사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기획했고, 배우 박솔미가 내레이션 을 맡았다.

영상에서는 세계 누리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리연구가가 직접 출연해 김치와 파오차이를 각각 만들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준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성 지역의 채소 절임 식품을 일컫는다. 영상은 김치와 파오차이는 만드는 방법의 차이, 맛의 차이, 보관 용기의 차이 등이 있다고 소개한다.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이번 영상을 국내 식품 유관기관, 재외공관, 해외 한식당 등에 배포해 올바른 김치 정보 전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연말 코로나 신규확진자 10만명대 전망

### 수리모델링 TF 분석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시작되면서 향후 2주간 10만명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실린 예측 결과를 보면, 권요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은 14일 8만 4571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28일에는 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 팀장은 KT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30일~지난 14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고려했다.

승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 역시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인 오는 21일 10만1629명으로 늘어 10만명대로 올라선 뒤, 28일 12만234명 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부산대 정일호 수학과 교수팀 역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앞선 두 연구팀에 비해 유행 확산세는 완만할 것으로 봤다.

해의 유행 사례를 제외한 국내 발생 사례만을 놓고 볼 때 14~20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6만8751명이 된 뒤, 21~27일에는 7만7743명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7만682명, 2주 후 7만 1232명, 4주 후 6만 9845명 수준으로 정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154명을 기록했다. 전남(8만4천571명)보다는 1만4417명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1주일 전인 지난 8일(6만5245명)보다는 4909명, 2주일 전인 지난 1일(5만7063명)보다는 1만 309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광주 전남에서도 이날 각각 2325명, 23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지분환영. 010-9582-7400

**금매물건 삽니다**  
경매직전 물건 삽니다  
(주)오천.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정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 토지금매

### 광주광역시 남구 입암동 692(호천 1지구) 대지 683.4㎡ (207평)

- 근린생활시설용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2면 도로접(중로1류, 소로2류)
- 5층 건물 신축 가능(대형식당, 스크린 골프장, 커피숍 등 다양한 상가와 1주택 건축 가능)

**매매가 : 18억 4천만원**

010-3605-8564

나주시 공고 제2022-1707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재열람 공고**

나주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에 생활SOC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나주시 공고 2022-761(2022. 5. 27.)호로 열람 공고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나주시 도시계획·건축공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6.  
나주시장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 변경없음  
나. 가변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안  

구분	종류	구분	면적(㎡)	기성	연장(㎡)	기성	종류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 용량	비고
기성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3,680	대-1	대-4	일반도로	-	간설(공공부 제2007-4518(2007.10.26))
변경	대로	1	1	35	보조 간선도로	3,680	대-1	대-4	일반도로	-	간설(공공부 제2007-4518(2007.10.26)) 3㎡ 셋백

  
- 도로 결정(변경)안사유  

변경지	도로명	변경지	변경사유	
대로-1	대로-1	대로-1	·연장: 3,680m - 폭: 35m ·변경 폭: 35m, 연장: 78m, 면적: 201.1㎡	· 97평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및 인입을 위해 도로 변경(3㎡ 셋백)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안  

구분	면적(㎡)	기성	연장(㎡)	변경	변경사유	최초 용량	비고
기성	공원	간	간	간	간	간	간
변경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소공원

  
- 공원 결정(변경)안사유  

도면변경	공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	간	· 공원 폐지	· 97평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위해 근린공원 폐지
소A	소공원	· 소공원 신설(1,575.5㎡)	· 97평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의 지역주민을 위한 소공원 조성

다. 획지 및 건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게재생략(열람불가)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 열람불가(열람불가)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12. 16.(금) ~ 2022. 12. 23.(목)

5. 열람장소: 나주시 도시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6. 의견제출 방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 직접 또는 전자우편(cco12@koreakr)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